

'KREI리포터' 강원지회 간담회 결과

1. 개요

- 목 적: 강원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산림박람회 견학
- 일 시: 2018년 10월 11일(목)~12일(금)
- 장 소: 강원 원주시
- 참 석: 총 10명
 - 강원지회 리포터(9명): 변해동, 송인숙, 심호섭, 이윤희, 유영조, 최무열, 박현근, 박정숙, 이진수
 - 연구원 관계자(1명):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비 고
11일(목)	12:00~14:00	점심식사	
	14:00~17:00	견학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17:00~19:00	저녁식사	
	19:00~24:00	간담회	강원지역 현장여론
12일(금)	07:00~08:00	아침식사	
	08:00~11:00	견학	백담산

2. 주요 논의 내용

- 강원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 박정숙: 여름 폭염으로 과수 결실이 안 되었는데 재해보험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재해보험이 농업인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수익을 내는 보험 상품으로 보다보니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염으로 수확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배가 바람에 낙과를 하였는데 배는 봉지를 찢기 때문에 곁에 상처는 없지만 배 자체가 떨어지는 충격으

로 배 내부는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멸정한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조사 후에 보관 중에 상하는 상황이 되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즙도 3일 이내에 좋은 배즙을 만들어야 하는데 양이 많아서 할 수도 없어서 시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낙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사후에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수: 자생단체 신고를 자유롭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종별이 멸종이 되어 가기에 작목반을 만들어서 농촌진흥청에 사육 교육 및 개량증식 교육을 받아 별을 받으려고 하는데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8km 떨어진 옥지도에서 별을 임대해 가져왔습니다. 토종별의 저항성을 갖는 별 육성이 시급합니다.
- 박현근: 모두 다 알다시피 일전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난 공장이 보조금을 받고 지은 유기농 자재의 공장입니다. 도와 군 자금이 들어갔고 건물은 10년이 되었고 장비들은 5년이 되었습니다. 불이나자 도와 군에서 원상복구를 안하면 환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들 때는 완전히 보상해 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공장을 짓는 것은 시작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했던 곳에서 유기농 자재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농 자재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판례가 없다고 환수만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환수를 한다면 감가상각을 한 부분에 대한 환수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이 나고 나니 유기농 자재가 타서 옆에 개천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나 고농도의 물이 흐르다 보니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물을 뿌린 것인데 참 힘듭니다. 다시 공장을 지으려 하니 판넬로 만들었던 시설이다 보니 인허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 변해동: 흥천하면 한강의 상류지역입니다. 시골이 그러하지만 저희 이

웃동네는 노인들만 20여 가구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박스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스공장이 아니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군수가 약속을 하고 주민들을 속여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탄로나서 시끄럽습니다. 투명하게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발전기금 5억을 받고 온 동네가 불만의 목소리로 시끄럽습니다.

- 유영조: 저희동네에서 제일 어린 아이를 보니 중학교 2학년입니다. 농촌에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농촌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촌에는 출산 장려금을 도시보다 더 주어야 합니다. 시골로 들어오면 아이들을 엄마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우고 그 후에는 대학진학도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육아를 하는 할머니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안도 생겼으면 합니다. 도시에서 이혼을 해서 아이들만 시골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지원이 시급합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이운화: 요즘 저희 동네는 기업형 축산시설이 갑자기 우후죽순 들어오면서 악취가 심해지고 경관은 엉망이 되면서 지역민들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축사의 허가를 할 때 허가기준에 악취도 포함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단속을 나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것을 보면 해결방안이 있는데도 평상시 실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사 환경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일손 부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년 내내 상시로 일손이 필요한곳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둘 수 있지만, 상시로 일손이 필요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 청년농업인도 귀농인도 늘어나는 시점에 구인과 구직이 연결 될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면 농업인에게는 일손이 해결되고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에게는 소득의 기회와 배움의 기회도 되리라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농업 구인/구직 공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장기적 고용과는 별도로 농기계 임대사

업처럼 때때로 필요한 일손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면 농번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의 일당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과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까요? 공공근로라는 명목 하에 몇 시간만 버티면 농장의 하루 일당보다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농장과 연계하여 활용토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송인숙: 축산농가에는 방제복이 지급되지만 농가에는 방제복이 따로 지급이 안 됩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대부분이 입던 그대로 하고 그 옷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나오는 뉴스가 야생진드기로 인해 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야생진드기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야외활동 자제를 권하지만 농산물판리는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도 미세먼지 차단마스크와 방제복 등을 지급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밤마다 멧돼지가 옥수수 밭을 쓰러뜨려 먹고 가고, 시에 신고를 하니 포수가 와서 멧돼지를 잡아 주었다. 그런데 낮에는 또 까마귀 수 십 마리가 와서 며칠 후면 수확할 옥수수를 전부 까먹어 피해가 컸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단은 저녁에 총을 지급받아 활동한다고 하는데, 경찰서까지 45km를 넘는 거리를 하루 총을 찾으러 갔다가 반납하고 나면 한나절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물을 심어서 수확하는 기간에는 마을 내 총기보관소를 만들든지, 적시에 활용토록 야생동물 포획에 힘써 작물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견학

- '산림, 함께 여는 녹색일자리'를 주제로 개최한 박람회에 참여해 지역 특산물, 곤충, 목공예품 전시관 등을 견학하고, 산림문화작품을 비롯 방제용 농약분사 드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짐.

3. 이모저모

